

김영일 대표님께

짜. 패.

THE CITY OF VIOLENCE

각본 / 이원재 류승완 김정민

제작 / 외유내강

연출 / 류승완

1. 거리, 골목 - 실외/밤

투자, 배급사 로고 끝난 후, 메인타이틀 < 짹>가 떠오르며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이어진다. 페이드인. 누군가를 쫓아 달려가는 왕재의 뒷모습을 거칠게 쫓는 카메라. 왕재가 골목 어귀로 사라짐과 동시에 골목 저편에서 소란스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창백한 안색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느끼는 왕재의 얼굴에서 빠져나오는 카메라. 온몸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왕재

너... 너... 이...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왕재.
왕재의 시선으로 보이는 피 묻은 손 클로즈업. 벌벌 떨리는 손이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면,

2. 경찰서 - 실내/아침

소란스런 분위기의 경찰서 내부를 훑어가는 카메라. 전화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구석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잠들어 있는 태수의 모습. 태수의 전화기가 울리고 있다. 태수의 맞은편엔 태수가 검거한 살벌한 외모의 조폭 덩치들 세 놈이 옷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엎드려 자고 있다. 전화기 소리에 눈을 뜨는 태수. 책상 위에 올린 발로 엎드려 자고 있는 조폭의 머리를 툭툭 친다. 바짝 긴장해 벌떡 일어나는 조폭.

태수,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를 발로 가리킨다.

벌떡 일어나 수갑 찬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 태수에게 건네는 조폭.

다시 뒤로 기대어 눈을 감으며 전화기를 켜는 태수.

태수

(눈을 감은 채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정대습니다...

순간, 고개를 젖힌 채 눈을 뜨는 태수의 부감 클로즈업. 음악 시작.

3. 온성 역 플랫폼 - 실외/낮

역에 도착한 기차에서 내리는 태수. 정장차림에 여행 가방을 들고 있다.

미란 (전화 필터)

오빠... 저 미란인데요...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태수.

미란 (전화 필터)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죠?...

무표정하게 사람들 틈에서 걸어가는 태수의 모습.

미란 (전화 필터)

오늘 새벽에...

4. 온성 역 앞 - 실외/낮

역을 빠져 나오는 태수.

미란 (전화 필터)

왕재 오빠가 죽었어요...

<내 고향 온성 관광특구 지정에 모두 함께 합시다> 따위의 플랜카드가 보이는 가운데, 가죽가방을 손에 든 태수가 고향을 둘러보는 모습이 롱 쇼트로 펼쳐진다. 음악 마무리.

5. 영안실 - 실내/낮

영안실 안으로 들어서는 태수의 뒷모습을 따르는 카메라. 썰렁한 영안실 안에는 왕재의 부인 미란이 혼자서 영안실을 지키고 있다.

태수를 돌아보는 미란. 태수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는다.

미란을 보는 태수. 반가움과 안타까움에 자리에서 멈춰 선다. 시선을 돌려 영정을 바라보는 태수.

태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왕재의 영정사진. 호탕한 모습이다.

6. 조문객 접견실 안 - 실내/낮

다소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접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테이블 중심에 필호가 앉아있다.

필호

(음식 나르는 직원들에게)

야, 여기 맥주하고, 마른안주를 좀 더 저기 해여. 저기 어르신들 테이블두 빨랑 좀 저기 하고...

청년회장

그나저나 장 사장 아니었음 증말 큰일이었네... 왕재 친척두 읊구,
미란이 넌 혼자 이 큰일얼 다 치르야 허는디...

필호

왕젠 지 동생 남편이기 이전에 지 둘두 읊는 친구유. 내가 가족이
아니든 누가 가족이유?

청년회장

장 사장은 차암 사람이 바라서 좋아...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들으라는 듯)
내가 이래니께 당당허게 어서 후배 자랑두 허구 그래는 거 아녀.

필호를 중심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이어지는 가운데, 한쪽 구석엔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다. 담
배하나 꼬나물고 판을 이어가는 중에 건너편 쪽을 유심히 살펴보는 석환.
석환의 건너편에는 석환의 형 동환이 술에 취해 혼자 횡설수설하고 있다.

동환

나는 그러... 솔직헌 얘기루다가 내가 고시공부헌다구 했을 때 끝
까지 날 밀어준 게 왕재 뿐이 읊어...
(술잔을 집어던진 뒤 술병을 잡고 일어서며)
니미! 내 말이 틀려 안틀려?! 여깃는 늬덜 솔직헌 얘기루 나헌티
손가락질 안 헌 늬이 어딴냐고?!!

짜증나는 눈빛으로 동환을 바라보는 석환.
필호도 짜증나는 눈빛으로 동환을 바라본다.

청년회장

동환이 그만 해여, 많이 취했어.

동환

취허긴 필 취해유. 입바른 소리허므는 취헌규? 필호야 안 그래냐?
왕젠 죽으믄 안 될 늬이여... 여깃는 늬덜이 싹다 뒤져야지...

이를 바라보던 석환이 느닷없이 자릴 박차고 일어나더니 동환에게 달려든다.
취해서 비틀거리는 동환에게 주먹을 한 방 먹이고는 쓰러진 동환에게 달려드는 석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실내.
사람들 석환을 뜯어말리려 하지만, 석환의 기세를 당하지 못한다.

석환

(동환의 목을 조르며)

야이 개 호로잡너러 새끼야! 술 취했으므는 집에 가서 발뺌구 잠
이나 자빠져 자지...

필호

(석환을 뜯어말리며)
그만해염 마!

석환

아, 놔유! 이런 새끼 버르장머럴 고치야 돼유!

필호

(석환을 때어내 석환의 따귀를 갈기며)
그래두 니 형이염 마!

필호의 기세에 놀리는 석환. 씩씩대며 시선을 내리까는 석환에게 괜찮다는 듯 어깨를 툭 치는 필호.

석환에게 맞아 정신을 잃은 동환.

필호

신경덜 쓰지 말구 허던 거 해유.

사람들 진정하며 자기 테이블로 돌아간다. 모여 있던 사람들 흩어지자 접견실 입구에 서있던 태수의 모습이 보인다.

태수와 눈이 마주치는 필호. 표정이 환해진다.

필호

야!...

태수

상갓집서 이게 뭘 난리여...

태수를 보는 석환. 역시 놀란다.

필호

(태수에게 다가가며)
이 개놈에 새끼 살어는 있었나?

7. 왕제의 술집 - 실내/밤

아무도 없는 호프집. 문이 열리며 필호가 태수와 석환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선다.

필호

들어 와. 여기가 왕재가 허든 가게여.

영업을 하지 않아 더욱 커 보이는 실내엔 필호와 태수만이 테이블에 앉아있다. 맥주를 가져오는 석환.

필호

(가게 내부를 둘러보는 태수에게 맥주를 따르며)
꽤 크지? 왕재가 애지중지하던 가겐디... 야 석환아 안주 좀 저기
해 와라.

석환

그리잖아두 허구 있슈.

주방 쪽으로 가는 석환.

필호

(건배를 청하며)
그나저나 워치케 지내나?

태수

워치케 지내긴 뭘 워치케 지내야? 형사가 범인 잡으러 땡기지.

필호

너 아직두 애딜 잡아다 쥐어 패서 자백받구 그래나?

태수

요새 마 시장이 워편 시장인디... 애딜 수갑두 짝 쪼이믄 전 지랄
덜을 떠는디... 취조실 들어가믄 아주 상전이여 상전...

필호

그런 거 보믄 증말 우리나라두 선진국 대열에 낀 거. 텔레비전서
봐두 미국 형사덜은 특별히 총 쏠일 읊으믄 과학수사나 대화루
기가백하게 잡아내잖아...

태수

쫓 까는 소리 그만 허고, 왕재일 워치케 된 거?

필호

참, 씨발...

(한숨을 푹 쉬더니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나두 아주 황당해 죽겠다. 대충 얘기는 들었지?
(고개 끄덕이는 태수를 보며)
여기서 당헌 거 아니냐. 그날 아르바이트하던 애가 못 나와갖구
왕재가 직접 카운터를 봤다야.

필호의 얼굴을 돌아 카운터 쪽을 비추는 카메라. 어느새 술집 안은 손님들로 꽉 차고, 왕재가 쟁반을 들고 직접 서빙을 보고 있다. 이런 왕재를 따르는 카메라. 정상 화면에서 리버설 필름 느낌으로 전환. 음악과 함께 필호의 설명이 이어진다.

필호 (소리)

손님덜두 꽉 차구, 평일에두 장사가 무차게 잘 됐데는 거 아녀...

여기저기서 “아저씨 여기요!”를 부르는 소리.

왕재

에! 갑니다!

왕재가 바쁘게 주방 쪽으로 달려가면, 입구에서 10대 양아치들 3명이 왕재와 스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필호 (소리)

근디 꺾끄만 애덜이 가게 와서 좀 시끄럽게 했나보드라고...

우당탕! 소리와 함께 벌어지는 싸움판. 10대 소년들이 싸움판을 벌인다.

싸움을 말리는 왕재.

발악하는 취객들을 하나씩 제압해버린다.

왕재의 완력에 모두 물러서지만, 10대 아이들은 겁 없이 왕재에게 बारबार 대든다.

왕재

야 이누므 시키덜아! 가만 안 있어?!!!

필호 (소리)

요새 애덜이 워낙 겁이 없잖나. 나두 요새 질루 무서운 기 애덜
인디...

왕재의 호령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병을 집어던지는 10대.

날아드는 병을 퍽, 하니 잡아내는 왕재.

아이들 모두 밖으로 튕다.

왕재

거기 안 서?!!!

필호 (소리)

왕재 그놈 승질 알잖어. 그때 그냥 참았으야 허는디, 애덜 버릇
고쳐 준다구 쫓어나간 거.

8. 거리, 골목 - 실외/밤

거리를 질주하며 골목으로 들어서는 10대들. 음악 연결.

왕재가 뒤쫓는다.

아이들을 쫓아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왕재. 텅 빈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카메라. 소란스
런 소리가 들려온다.

필호 (소리)

천하에 왕재두 나이는 먹을 거 아니냐? 팔팔헌 애덜을 워치케 당
해여?...

카메라 골목 안으로 들어가 왕재가 사라진 쪽으로 꺾이면, 처참하게 바닥에 피 흘리며 널브러진
왕재의 모습이 보인다. 음악 마무리. 다음 컷 여음으로 연결.

어느새 골목에 서서 왕재를 지켜보는 듯 서있는 태수의 모습. 정상화면.

카메라 부감으로 빠지면, 왕재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 그려져 있는 사체표시 라인과 아직 지워지
지 않은 핏자국이 보인다. 한쪽 무릎을 꿇으며 핏자국을 만져보는 태수.

뭔가 미심쩍다는 느낌의 태수 얼굴.

9. 석환의 집 - 실내/밤

샤워를 마친 석환이 발톱을 깎고 있고, 그 뒤로 석환의 엄마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좁
고 낡은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 내부.

석환 엄마

느이 형... 웬 썩을 늪덜헌티 맞았는지,
(옆방에서 자고 있는 동환의 모습)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갓구 들어왔다.

석환

맞을 짓 했으니께 맞았겼쥬.

석환 엄마

암만 그러두 니 형인디 니가 줌...

석환

(말 끊으며)

아니 형 같으야 형 대우를 해주지유... 솔직헌 얘기루 우리 이모
냥 이꼴루 사는 게 누구 때문이유? 고시병 걸려갓구 고시공부 헌
다구 집안 돈 다 까먹었으믄 됐지 뭇 더 봐줘유.

10. 태수의 숙소 - 실내/밤

모텔 숙소에 짐을 풀고 잘 준비를 하는 태수. 침대에 누워 친구들과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본다.
어린 시절 왕재, 태수, 필호, 동환, 석환이 함께 한 즐거웠던 한 때의 사진.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태수의 얼굴로 줌 인. 이 위로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

11. 가을 소풍 산 - 실외/낮

소풍 나와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 트래킹 하는 카메라. 왕재, 태수, 필호가 주위 눈치를 살
피며 달려오고 있다. 자막 "1987년 가을 소풍"이 떴다가 사라진다.
아이들로부터 한참 떨어진 숲에 자리 잡는 아이들. 왕재가 병을 꺼내든다.

10대 태수

(왕재가 꺼내드는 병을 보며)

이게 뭐여?

10대 왕재

이깸 마, 뱀술 아녀 뱀술... 정력엔 이게 왔다여...

10대 필호

워서 난 겨?

10대 왕재

워서나긴 워서 나?... 조 밀티서 실뱀하나 잡었잖어. 그걸루 기냥
즉석으루다가 담근 겨.

10대 태수

아, 뭐하? 얼른 까지 안구선?

10대 왕재

무식헌 늬. 이건 마 바루 먹는 거 아녀. 폭 목힐수록 끝내주는

겨. 오늘 일단 물어두자 이거여. 그리구 한 20년 있다가 품 나게 성공해서 끄내 마시는 겨.

10대 필호

정력에 좋다는디 그까짓 누르겨 20년 못 기다리겠냐?...

이때 뒤에서 10대 동환이 애타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온다.
놀라서 돌아보는 아이들.

10대 왕재

(다 쓰러져가는 동환을 보며)
뭔 일 났냐?

후다닥 동환이 이끄는 쪽으로 이동하는 왕재 패거리들.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 휴대용 오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이 이어진다. 나미의 “영원한 친구”

12. 산 다른 곳 - 실외/낮

다른 고등학교 양아치들 열댓 명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달리는 10대 석환. “영원한 친구” 연결.
달려드는 아이들을 모두 난폭하게 쓰러뜨리며 계속 치고 나간다.

13. 산성 터 - 실외/낮

산성 터로 쫓겨 들어온 석환. 잡히는 대로 집어 들고 덤벼드는 양아치들과 싸운다. 음악 연결.
위낙 거센 기세에 쉽게 석환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양아치들.
하지만 수에 밀리는 석환이 점점 밀려간다.
위기에 몰리는 석환.
이때 왕재를 필두로 한 아이들이 각자 손에 나무 몽둥이를 하나씩 집어 들고 나타난다.

10대 왕재

위디 온고 양아치 새끼덜이 갑치구 지랄덜이여?!

와르르 달려드는 왕재 패거리들.
대규모 패싸움으로 번진다.
일단 덤비기는 했는데 숫자에 몰리자 튀는 왕재 패거리들.

14. 산성 주차장 - 실외/낮

차들이 주차된 주차장 쪽으로 달려와 왕재의 지시에 따라 흩어지는 아이들.
 뺨 뚫린 공간에서 좁은 곳으로 이동해 오히려 각개 전을 펼치기 유리해진다.
 주차된 차들 위를 넘나들며 싸우는 아이들.
 주위 관광객들 모두 기겁을 하고 도망치고,
 차들은 하나씩 부서져 나가기 시작한다.
 왕재는 한방씩 묵직한 펀치를 날리며 아이들을 쓰러뜨리고,
 태수는 현란한 발차기로 아이들을 날리고,
 필호는 살벌한 몽둥이질로 아이들을 깨고,
 석환은 난폭한 주먹질과 발길질로 아이들을 무너뜨리는데,
 동환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한다.
 “영원한 친구”의 리듬에 맞춰 마치 뮤지컬 같은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
 서로 위기에 빠질 때마다 서로를 도와주는 아이들.
 이들의 격렬한 싸움와중에 10대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들이 슬쩍슬쩍 교차된다.
 석환을 향해 던지려고 칼을 빼어드는 상대 과 두목 녀석.
 석환이 위기에 몰린 순간,
 왕재가 달려와 석환을 보호하며 날아들던 칼을 대신 맞는다.
 이때 태수가 쓰러진 왕재를 타고 넘어 멋진 발차기로 상대 두목 놈을 쓰러뜨린다.
 그 위로 달려들어 마구 몽둥이질을 해대는 필호.
 왕재, 몸을 일으키며 팔에 박힌 칼을 빼낸다.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석환에게 슬쩍 미소지어보이는 왕재.
 두 배가 넘는 숫자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이들을 둘러보는 왕재 패거리들. 음악 마무리.
 필호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기절해 있는 두목 놈을 계속 때고 있다.
 필호를 말리는 아이들. 겨우 흥분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는 필호. 의기양양하게 서있는데,
 태수가 맞은편을 보고는 왕재를 툭툭 친다. 맞은편을 보는 아이들.
 50여명의 다른 학교 패거리들이 각자 쇠파이프, 체인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살벌한 무기들을 들고
 마주서 있다.

15. 야산 - 실외/저녁 무렵

목만 내놓고 땅속에 파묻혀진 왕재 패거리 5인조. 서로를 바라보는 아이들.

10대 석환

면목웁슈...

.. 10대 왕재 ..

웬찮어... 살다보든 이런일두 있구 저런 일두 있지 뭘...

10대 태수

그나저나 왜 그런 거?

10대 석환

아니 우리 형이 뽕신걸이 온고 애새끼덜헌터 뽕 뜯기구 있잖어
유...

10대 동환

(고개 숙이며)
미안 하...

10대 왕재

뭘 소리염 마, 판검사 될 늬이 맨 씬질이나허구 땡기구 그래는
게 더 이상허지... 나중에 니가 우리 뭍까지 원수 갚어 줘...

10대 태수

그나저나 오줌 마려운디 워쳐커냐? 여기서 나갈 순 있을래냐?...

10대 필호

조 미터가 집인디 여기서 살려달라구 소리치믄 안 들리래냐?

10대 왕재

쪽 팔리게...

10대 필호

그람 워쳐까?

10대 왕재

그냥 고성방가가 낫지 았잖냐?

점프. 어느새 고래고래 소리치며 노래 부르는 5인조.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다. 디졸브.

16. 화장터 입구 - 실외/아침

디졸브 연결되며, 왕재의 영정 사진을 든 미란을 필두로 관을 들고 걸어오는 태수, 필호, 석환, 동환의 모습이 보인다. 고속촬영. 그 뒤를 따르는 청년회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잘 나가던 왕재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7. 화장터 - 실내/낮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왕재의 관.

오열하는 미란.
눈물을 흘리는 태수.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필호.
충혈 된 눈으로 타들어가는 왕재의 관을 똑바로 지켜보는 석환.

18. 법당 - 실내/낮

왕재의 유골이 안치 된 법당에 재를 올리는 사람들.

19. 법당 외부 - 실외/낮

법당을 나오는 사람들. 모두 미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사라진다.
미란이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하자 옆에 서있던 필호가 미란을 부축하는데, 미란이 이런 필호의 손길을 억지로 뿌리친다.
안타깝게 미란을 바라보는 태수.

사람들 틈에서 떨어져 나와 서있는 필호, 석환. 필호의 뒤에 여비서와 박 팀장이 서있다.

석환

저한테 뭐 시킬 일 없쥬?

필호

왜?

석환

더 늦기 전에 움직이야쥬.

필호

뭘?

석환

뭘긴 뭐유? 왕재 형 쭈신 늬덜 찾으야쥬.

필호

니가 찾긴 뭘 찾엄 마? 괜히 나대구 땡기다 사고나 치지 말구 가만 있어. 요새 가뜩이나 동네두 시끄러운디...

석환

아니 형님은 위치케 그런소리가 나와유? 땡 사람두 아니구 왕재

형이유!

필호

난 안 분혀졌어? 난 속이 안 타졌냐고?... 너헌턴 선배지만 나헌턴 친구여. 열통이 터져두 내가 더 터점 마! 암만 그려두 일엔 다 때가 있능겨.

석환

난 그런거 모르졌구, 기냥 왕재 형 제긴 눅덜 잡아다 뻥다구까정 다 발를뉘.

필호

(돌아서 가는 석환을 보며)
얌마! 야!

필호가 뒤에 선 비서들에게 뭔가 얘기하려하는데, 태수가 다가선다.

태수

재 또 왜 저런디야?

필호

아너... 저 꼴통 새끼 저거... 우리두 슬슬 내려가자.
(걸음 옮기며)
그나저나 오늘 올라 가나?

태수

암만 생각해두 왕재 일 뭐가 딱 안 떨어지는 거 같어... 왕재 사건 마무리 되는 거 내 눈으루 봐야 겠어.

필호

얌마, 내가 여기 있는디 뭘 걱정이여?

태수

(필호 어깨를 툭 치며)
니가 움직이믄 불법이구 내가 움직이믄 합법이여...
(필호를 지나치며)
범인 잡는 건 내가 만날 허는 일 아니냐.

필호

(내려가는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비서들에게)
태수 재는 뭘 일 날지 모르니께 니털이 신경 써서 뒤 줌 잘 봐주

야 험다 이? 글구 석환이 높은 한번 사고치믄 골치 아프니까 알아서들 잘 봐주고...

머릿속이 복잡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는 필호.

20. 왕재의 집 - 실내/낮

왕재와 친구들의 어린 시절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는 벽을 따라 이동하는 카메라.
태수가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긴다.
술 장에 진열된 술중에서 낡은 병에 담긴 뱀술 앞에 멈추는 태수. 뱀술을 꺼내며,

태수

왕재 최근에 뭐 이상헌 눈치 옳디?

짐정리만 하며 대답 없는 미란.

태수

(뱀술을 제자리에 놓고)

갑자기 안 허든 행동을 험다든가...

미란

서울 안 가요?

(무슨 소리냐는 듯 돌아보는 태수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친구 장례 치렀으면 됐지 여기서 뭘 또 뒤집어 놓으려구 그래?

태수

미란아 그게 아니잖어.

미란

나 옛날에 미란이 아니예요. 오왕재씨 부인이야.

태수

아, 씨발... 진짜... 나두 답답해서 이래는 거 아녀!!!

미란

그런 나는 어땡겠어?!

(왕재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난 이 사람 마누라야!

태수

(한 숨을 푹 내쉬며)
한 가지만 묻자... 왕재 예전 일 손 씻은 거 맞아?

미란

(진정 시키며)
감옥 간 동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 애기 유산하고 하는 바람에
충격 좀 먹었어요. 캄패생활 손 씻은 지 꽤 오래됐어.

사진 속의 왕재를 바라보는 태수.

21. 거리 - 실외/저녁

양아치 10대 녀석들 3명과 만나고 있는 석환.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누군가의 시점으로 보여 진다. 정보를 주고받은 뒤 헤어지는 석환과 양아치들. 카메라 이동하면 차 안에서 석환을 살피고 있는 필호의 4인방 중 하나인 서 팀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22. 운당정 복도 - 실내/저녁

전화로 보고 받는 필호. 그 옆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두 명의 비서가 서있다.

필호

이... 이... 아직 별 일은 없지?... 그러.. 알었구 별 탈없게 잘 지키
해라 이...

23. 운당정 - 실내/저녁

거나한 한정식 상이 차려진 요정 분위기의 실내. 한복 입은 여인들이 술 접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필호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서울에서 온 조 사장의 직원들 세 명은 이미 얼큰하게 취해있는 상태다.

조 사장

아니 장 사장. 뭘 화장실을 그렇게 오래 다녀와?

필호

죄송합니다.

조 사장

(필호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우리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필호

관광특구...

조 사장

어, 그래! 관광특구. 그래서 온성 관광특구 사업이 국회에도 통과
하고 이제 발표만 남았잖아. 카지노 입주 허가도 받고. 여기까진
장 사장이 잘 해줬어.
(단숨에 술을 들이킨 필호의 잔을 받으며)
문젠 지금부터라고. 내가 이 사업 작년부터 얘기하지 않았나?

필호

예.

조 사장

카지노가 말야.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 입주 허가를 받는다
고 다 되는 게 아니예요... 도로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되서 지금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잖아?

필호

그 문제는 지가 계속적으루다가...

조 사장

최선을 다한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세상에 노력
안하는 사람 없고, 최선을 다 안하는 사람 없어. 잘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만 있는 거야. 거기 도로문제 해결 안 되면 여기 힘들
어져.

굳은 결의를 보이는 필호의 얼굴.

24. 부동산 골목 - 실외/낮

두툼한 손가방을 들고 골목을 확보하는 청년회장. 골목 안 상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어디론
가 가고 있다. 골목은 온통 부동산 상가들 천지. 이 옆으로 필호의 차가 다가선다.

필호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형님!

청년회장

이? 워쩐 일이어?

필호

바빠유?

청년회장

바쁠 일이 뭐 있어?

필호

시간 있으믄 저랑 싸우나나 같이 허쥬.

청년회장

싸우나 조오치!!!

25. 텅 빈 공중목욕탕 안 - 실내/낮

칼칼 쏟아지는 온수. 날카로운 칼이 물에 씻긴다.

속삭속삭, 날카롭게 칼 가는 소리와 함께 텅 빈 목욕탕이 보인다. 칼 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동하는 카메라. 물 빠진 탕 안에 퐁퐁 묶인 채로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손이 묶여있는 청년 회장이 보인다. 그 앞에서 칼을 가는 순한 인상의 50대 아저씨 살수. 마치 때밀이처럼 보인다.

부들부들 떨며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청년회장.

맞은편에 필호가 앉아있다. 그 뒤를 호위하고 서있는 4인방.

살수

(아무렇지도 않게)

새끼부텸 잘러유, 엄지부텸 잘러유?

필호

(잠깐 생각하는)

새끼?... 엄지...? 엄지가 낫지.

살수

(청년회장 손가락에 싸인 펜으로 점선 표시하며)

하긴, 워차피 다 잘라낼 거, 아무럼 워떠...

청년회장

이... 이봐! 장 사장! 나 청년회장이어!! 장 사장 정신적 지주!! 증

말 이리기여?

살수

아예 세빠닥을 자르는 건 어뉘?

필호

침부팀 너무 송악스럽잖어...

청년회장

(기겁하고)

장 사장! 돈 갚으믄 될 거 아녀, 이? 나 종손인 거 알잖여... 그 땅은 안뒤야... 종손이 워쳐케 고향을 떠...? 이?!!! 필호야!!!

필호

중 귀찮구 저기해믄, 한방에 손목을 찢르든가...

살수

(팔목에 다시 싸인 펜으로 칠하며)

그래두 되나?...

청년회장

(마지막 힘을 다해)

장 사장!!! 니가 지금 누구 뺨이 땡땡거리능 거?!!!

살수

근디, 발목이 안나유? 손이야 없어봤자 팔 한 짝 불편한 거구, 발은 없으믄는 목발 짚으야 허니께 손발이 다 저기 허자뉴?

필호

이... 그럼 발목.

청년회장

(울먹이며)

장 사장님... 집허구 땅 다 드리믄... 지는 워덜 가유...

필호

(청년회장에게 다가가 몸을 숙이고는)

땡속으로다가 노래라두 부르믄 춤 들힐 규... 잉? 저기 누구냐... 옛날에 김형욱인가 누군가는 갈아서 양계장에 뿌렸데잖어유... 그 거에 비해믄 월메나 인간적이유... 그러게 왜 약속덜은 안 지켜서 사람 모질게 만들구 그류...

살수, 점선 다 그렸는지 청년회장의 발목에 피가 살짝 나게끔 칼을 살포시 살 속에 박는다.
으으옥... 가랑이를 타고 줄줄줄 흐르는 청년회장의 오줌.
씩- 웃는 필호.

26. 술집 화장실 - 실내/낮

화장실에서 화장 고치며 수다 떨고 있는 앓된 술집 아가씨들.
석환 들이닥치자 “어머, 오빠 뭐야?” 당황하는데 석환, 손가락 까딱대며 나가라고 눈짓한다. 궁시
령 대며 우르르 나가는 아가씨들. 변기 칸 안에서 들려오는 미스 배의 당황스런 목소리.

미스 배 (소리)

이년들아, 왜 그래? 누구 왔어?

석환

(문을 쿵쿵대며 눌러먹듯)

에에- 이슬만 먹는 줄 알았더니 똥두 싸는 개비네?

미스 배

오빠? 쪽팔리게 왜 그래? 나가!

석환

애덜 언제 와?

미스 배 (소리)

무슨 애들?!

석환

(마담 흉내 내며)

뭘 애덜... 니 맥여 살릴라구 뻘치기 허러 다니는 느이 서방.

미스 배 (소리)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석환

아니 왜 화렐 내구 그라?...

(핸드폰을 변기 문 위로 올려서 번쩍! 폰카 사진 찍고)

만날 술 처먹으니 께 물똥만 싸지? 어이, 물똥너! 이거 인터넷에
썩악 뿌려보까?

미스 배

(성질 확 내는)

야! 너 미쳤어? 난 모른다니까!

석환

이... 그러? 알았어...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건 법적으로 괜
찮나 모르겠네?... 술 마시는 건 확실히 걸리는 디...

(하더니 수도꼭지에 꼽혀 있던 호스를 들고는 수도물을 틀고)

요샌 비데가 유행이여...

호스를 변기 문 아래에 집어넣고는 호스 끝을 쥐어 잡는 석환!

안으로 썩아아- 강력히 발사되는 물줄기. 변기 칸 안에서 들려오는 까악- 미스 배의 비명소리.

길길대는 석환.

미스 배 (소리)

아, 씨발! 요새 본정통 어디 숨어있데!!!

27. 오락실 - 실내/낮

담배연기가 짙 찬 오락실 안으로 들어서는 태수. 주위를 둘러보더니 누군가를 향해 다가간다.

매우 불량스런 모습과 자세로 오락에 열중하고 있는 양아치에게 다가가는 태수.

양아치가 태수를 올려본다.

28. 오락실 뒷골목 - 실외/낮

오락실 밖으로 튀어나오는 양아치.

태수가 이를 쫓아 달려 나오다 맞은편을 보고 멈춘다.

골목에 있던 양아치 패거리들 다섯 놈이 양아치의 뒤에 병풍을 치고 있다.

태수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묻는 거에 대답만허믄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여?

양아치

(버터플라이 나이프를 돌리며)

아저씨가 뭐디?... 짜바리여?

태수

난 경찰보구 짜바리라구 허는 늠덜허군 얘기 길게 안 해여. 미안

하다.

느닷없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드는 태수.
아이들도 태수에게 달려드는데, 벽과 지형지물을 이용하며 싸우는 태수를 당해내지 못한다.
나름대로 방방 뛰는 아이들을 강력한 발차기와 펀치로 제압해버리는 태수.
마지막으로 오락하던 아이를 깔아뭉갠 뒤 녀석의 칼을 빼앗아 볼에 던다.

양아치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누... 누굴 찾는다구... 확실히 말씀을... 안 하셨잖어요...

29. 술집과 오락실 거리 분할 - 실외/낮

술집을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석환과,
오락실 골목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는 태수의 모습이 분할화면으로 보인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필호 비서 박 팀장과 서 팀장이 동시에 전화를 건다. 분할화면.

30. 철거예정지역 - 실외/낮

비서 두 명과 건축 담당자들과 함께 철거 예정지역을 돌아보고 있는 필호. 공사 설명을 듣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필호

여부세유... 이...

(흠칫 놀라며)

이... 아직 저긴 안 했지? 그러... 알았다 이. 애덜 입단속 시키고.

(전화를 끊은 뒤 비서들을 돌아보며)

저기... 저 말이다... 저기... 아녀 됐다. 내가 헐게.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어디론가 전화 건다)

이, 나여 필호.

31. 본정 통 거리 - 실외/밤

거리로 들어가는 태수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카메라. 한적한 밤거리에서 인라인을 타며 위협하게
노는 한 무리의 10대들 10여명이 보인다. 인라인을 타고 곡예를 하다가 짜당! 넘어지는 한 10대
녀석.

태수

(어슬렁거리고 걸어가며)
조심해염 마, 다치겠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걸어나는 태수. 인라인을 타고 노는 아이들, 본정 통 길을 누비며 위협하게 논다.

아이들을 무심결에 바라보는 태수.

태수 앞으로 인라인을 타고 노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

뭔가 이상한 듯하지만, 별다른 낌새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는 태수.

순간, 인라인을 타고 놀던 아이 하나가 붕 떠오르며 태수를 향해 요요를 날린다!

퍽! 머리를 맞고 휘청하는 태수.

태수

뛰어?!!!

다시 이어지는 10대 인라인 아이의 체인 공격!

가까스로 공격을 피하는 태수

연이어서 인라인 아이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배트 등으로 태수를 공격해 댄다.

전혀 예기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도망치는 태수. 달려드는 아이들에게 반격을 가하며 골목으로 들어선다.

태수가 들어서는 골목에서 또 다른 교복 10대들 10여명이 몰려나온다.

아이들의 공격을 피하며 다시 거리로 뛰어나오는 태수.

부웅- 한쪽 골목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탄 아이들이 튀어나오며 또 다시 태수를 공격한다.

자전거 체인과 파이프 등으로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놈들!

태수, 몇 대 씩 맞아가며 놈들을 피해, 방향을 돌리는 순간,

맞은편에서 튀어나온 교복 입은 여고생들이 팻!! 석환을 향해 썩고 있던 면도날을 뿜는다!

얼굴에 상처를 입으며 땀구는 태수.

각각의 골목에서 운동복을 입은 아이들과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셀 수 없는 규모로 몰려나온다.

순식간에 10대갱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리!

위기를 느낀 태수, 10대 갱들의 공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역부족이다.

피하다가 맞고 막다가 또 맞고, 도저히 어찌지 못하는 상황.

태수, 거리에 놓여진 리어카와 입간판 등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놈들의 공격을 피해보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벽에 등을 기대고 싸우는 태수. 놈들에게 둘러 쌓여버린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태수에게 다가오던 한 녀석, 브레이크를 밟으며 스케이트보드를 하늘로 튕겨 잡더니 태수의 머리통을 휘갈기려는데, 뒤에서 석환이 붕 떠오르며 보드 소년의 머리통을 갈긴다.

태수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을 마구 공격하며 길을 뚫는 석환.

석환을 확인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서는 태수!

석환과 함께 한방향의 놈들과만 맞붙으며 길을 뚫는다!

빡빡빡- 달려드는 놈들을 필사적으로 제압하고는 10대 갱 무리를 헤쳐 나오는 태수와 석환.

달려드는 놈들을 뒤로 한 채 죽기 살기로 내달리고, 거리를 가득 채운 10대들이 이들을 뒤쫓는다.

32. 중고차 시장 - 실외/밤

중고차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가늘게 숨을 고르고 있는 태수와 석환. 온몸이 붉은 피와 시커먼 멍으로 가득하다. 손수건과 천 조각으로 피를 막고 있는 두 사람.

태수

(상처를 만지며)

재털 족보가 워치케 되는 늪털이나?

석환

(머리 상처를 만지며)

아, 맞은 늪이 알아유? 때린 늪털이 알지...

어느새 중고차 한대에 기어들어가 시동을 걸고 있는 석환과 태수.

석환

동네 망거진지 벌써 오래됐슈...

33. 도로 차안 - 실외/밤

중고차를 타고 이동하는 두 사람.

석환

형네야 진작에 서울 올라가서 여기 일 잘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클 때 그 온성이 아뉴 지금...

태수

고향 내려와서 다구리나 당허구, 참...

석환 (소리)

그나마 돈벌이두 읊는디 여기 사람덜 돈은 서울 늪털이 다 가져가유.

34.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 실외/밤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차를 세워두고 언덕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석환

왕재 형이 손 털구 자기 조직 싹 다 필호 형한테 넘기구 나니께
작년부터 여기 관광특구된다 어쩐다해서 들썩거리드니만, 카지노
까지 들어온데능규. 차암- 이럴 줄 알었으면 기냥 조직이나 끝구
있지 궁상맞게 호프집이 뭐여 호프집이...

태수

(담배를 꺼내물며)
왕재허구 필호허구 사이는 썬찮았나?

석환

필호 형이 혼자 일보는게 버거우니께 왕재 형이 많이 도와줬쥬
필... 나한테 그런 얘기 잘 안해유.

태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뒤)
석환이 넌 애덜 쭈시는 거 그만 뒤라. 내가 이쪽 형사덜허구 얘기
한테니께.

석환

(피식 헛웃음을 지으며)
말이 되는 소릴 해유 줌...

태수

니가 나서서 필 워져겠다곰 마!

석환

형님은 자기한테 베풀어 준 사람이 개죽음 당했는디 가만있을 수
있슈?

태수

나는 더 죽겠어!!! 니덜은 왕재 얼굴이래두 맛대구 살었지만 난
뭐냐?! 근 십년만에 친구 영정사진 보는 기분 알아?!

석환

(한숨을 내쉬 뒤 진정하며)
우리 동환이 형 고시병 걸려갔구 집안 다 말아먹을 때 우리 집 돌
봐 준 게 왕재 형이유. 나 비리비리하게 있을 때 나 챙겨준 사람
두 왕재 형 밖에 읍단 말유. 형이 뭐유?! 형이 뭔디 사람을 은혜

두 모르는 호로새끼루 만드능규?...

태수

(뭐라고 대꾸하려다 한숨을 내쉬며)

여기 꼬맹이 새끼덜 대충 루트 뚫을 수 있겠냐?

35. 폐장된 놀이터 - 실외/낮

최악!- 구조물을 뛰어넘는 인라인 아이들.

뒤쪽에서 석환과 태수가 이들을 쫓는 가운데, 쫓기던 대여섯 명의 인라인 아이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그 중 한 놈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하는 석환과 태수.

놀이터의 지형지물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놈을 갈라져서 뒤쫓는 두 사람.

붕- 날아오르는 아이를 향해 몸을 던지는 석환.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놓치고 바닥을 뒹군다.

넘어진 석환을 돌아보며 비웃는 인라인. 순간, 태수가 튀어나오며 발로 걷어차 버린다.

바닥을 뒹구는 인라인.

석환

(머리카락 부여잡고)

어제 본정 통에 온 놈덜... 누구여?

36. 추적의 몽타주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도시 곳곳을 누비며 10대들을 추적하는 태수와 석환. 강렬한 음악과 함께,

1) 동곳길 학교 정문 입구 (오전)

등교하는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복장검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과 선도부들을 트래킹하는 카메라. 줄 끝에 석환과 태수가 서서 아이들을 살펴본다.

학교를 들어서다 태수와 석환을 보고 돌아서는 5명의 본정 통 무리들.

태수와 석환이 이들을 쫓는다.

2) 학교 소각장 (오전)

떡이 되도록 얻어맞고 김밥 말이 하는 5명의 본정 통 무리들.

태수가 아이들을 굴리는 가운데, 석환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계속 물어본다.

3) 격투기 체육관 (낮)

링 위에서 스파링 하는 상대를 피 떡이 되도록 뭉개는 본정 통 패.

10대 녀석들 10여명이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으로 들이닥치는 석환과 태수.

한 녀석이 이들을 발견하고 밖으로 튀려고 한다.
재빨리 달려들어 창밖으로 뛰어내리려는 녀석을 벽을 짚고 뛰어 올라 걷어차는 태수.
바닥을 구르는 아이를 다시 한 번 짓이기는 석환.
링에 있던 본정 통 패 녀석이 링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태수가 인정사정없이 허공에 떠있는 아이를 걷어차 버린다.
그냥 바닥에 나뒹구는 본정 통 패.
태수와 석환에게 위협적으로 모여드는 아이들.
뭔가 적혀진 종이를 들고 체육관을 나서는 석환과 태수. 문이 쾅 닫히면,
체육관 안에 만신창이가 되어 여기저기 쓰러져있는 10대들.

4) 신축 공사장 건물 (밤)

팬티 바람으로 뒤엉켜 본드와 가스를 마시고 있는 10대 남녀 몇 명.
쾅! 입구에서 10대 한 놈이 바닥을 구르면, 안으로 들이닥치는 태수와 석환.
“뛰야?” 한 사내놈 일어나서 얼굴을 들이미는데 짹- 가차 없이 싸대기를 날리는 석환.

5) 철거 촌 (아침)

무너지고 있는 철거 촌에서 놀고 있는 꼬마 아이들을 잡아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석환과 태수.

6) 여관방 (낮)

원조교체를 하는 듯, 교복입고 있는 소녀의 옷을 벗기는 중년 아저씨.
쾅! 문이 부서지며 거침없이 들이닥치는 석환.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난 중년남자를 발로 걷어찬다.
썩썩 튀려는 소녀를 사정없이 벽으로 몰아붙이는 태수.

7) 굴다리. (저녁)

석환에게 면도날을 날렸던 교복 차림의 계집아이, 석환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려오고 있다. 굴다리 아래서 본드에 취한 풀린 눈으로 그 꼴을 바라보는 여고생들.

37. 고층건물 옥상 - 실외/밤

머리카락이 하늘로 올라간 채 피가 거꾸로 솟은 것 같은 면도날 여고생의 얼굴에서 카메라 천천히 돌아간다. 음악 연결.

면도날

(고함지르는)

.. 말해! 씨발, 말한다구! ..

카메라 돌면서 뒤로 빠져 부감으로 떠오르면, 석환과 태수가 여고생의 다리를 한쪽씩 잡고 옥상 난간에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음악 마무리.

석환

그르니께 누구냐고?

38. 학원 교실 안 - 실내/낮

수업종료 벨이 울리고 아이들, 일상적인 듯 인사도 없이 교실 밖으로 휘어- 빠져나간다. 동환, 교재를 챙겨들고는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석환, 태수와 마주친다. 갑자기 동환을 안으로 밀어붙이며 들어오는 태수와 석환.

석환이 교실 문을 잠그고 태수는 칠판 쪽으로 동환을 밀어붙이며 확! 동환의 팔뚝을 건는다.

동환의 팔뚝에 가득한 마약주사 자국!!

놀라는 석환.

석환, 동환에게 달려들어 마구 동환을 펜다.

석환

야이 개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니 엄니가 워치케 사는디!!!

태수

(석환을 뜯어 말리며)

그만 해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동환.

석환

(씩씩거리며)

넌 이 개새끼야 형두 아녀! 내가 워چه 이상허다 했어... 기집두 읍구, 놀러두 안 땡기는디 만날 돈 읍다구...

동환

(울먹이며)

그게 아녀... 그게 아녀...

태수

(동환 앞에 마주 앉으며)

동환아, 나 줌 봐라 이? 동환아.

(계속 고개 숙인 채 울먹이자 동환의 따귀를 날리며)

나 똑봐루 봐.

동환

(무너지듯 태수를 부여잡고)

난 몰렸어... 그냥 노는 애들 좀 공급해 주든... 약을 계속 준다구
해서... 근디 그게 니덜 뒤통수치는 일인진 증말 꿈에두 몰렸어!
그거 알구 그랬으면 내가 증말 개 뺏속에서 나온 늑이다...

태수

누구나? 너 일케 만든 늑이...

39. 철거 예정 지역 - 실외/낮

차가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필호. 그 뒤로 4인방 비서들과 철거용역 원들, 그리고 철
거 장비가 보인다.

필호와 마주선 마을 사람들. 그 앞에 대표로 보이는 50대 아저씨가 나서서 얘기한다.

대표

아니, 장 사장... 이거 너무 해는 거 아녀?...

필호

계약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유. 지정된 날까지 원금 상환 안허
시몬 담보로 잡혀신 부동산 전부 넘기는 걸루 돼 있잖어유...

대표

아니, 그때 돈 빌려줄 땐, 그때 그때 유두리있게 저기헌다구 했잖
어...

필호

더 이상 워치케 유두리럴 부려유?... 솔직헌 얘기루 이자두 은행
이자보담 싸지, 원금 상환두 계속 미뤘지...

아줌마

아니 여기 개발 들어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디, 개발 시기
맞춰서 우리가 땅 처분해서 원금 갚으면 될 거 아녀?!!

필호

난 복잡해서 모르겠으니께 기냥 계약서대루 할래유.

대표

야 이 늑에 자식아! 니가 순진헌 사람덜 돈 끌어다 쓰게 해놓구,
혈값에 땅 말아 먹을라구 그래는 거 누가 모를 거 같어?!!

필호

아니 왜 이제 와서 이 지랄떨어여?!!! 개발 된테니께 뭐 노다지라
두 캔 줄 알아?!!! 그람 진작부텀 내 돈을 갖다 쓰지 말던가... 이
거 완전 도둑놈덜 아녀...
(돌아서며)
야, 밀어.

마을사람들에게 물려드는 철거용역들.
거칠게 저항하며 필호에게 달려드는 몇몇 젊은이들.
곧바로 4인방 비서진들에게 무너지고 만다.

40. 폐허가 된 건물 입구 - 실외/저녁

왕재 사건에 연루되었던 10대 썩치기 패 한 놈이 먹을 것을 사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건물
쪽으로 다가간다.
건물 입구에 세워진 검은 차를 보고는 차 안을 살피는 썩치기 1.

썩치기 1

아, 씨발 먹을 것 줌 진작 갖다 달래니께...

41. 폐허가 된 건물 - 실내/저녁

건물로 들어서려는 썩치기 1. 신나게 원형 계단을 뛰어오른다.
아지트를 향해 다가가는 썩치기 1. 뭔가 투덜거리며 들어서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의외의 광경
때문에 제자리에 멈춘다.
왕재 사건 때 같이 일을 벌이던 두 친구가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광경.
들고 있던 먹을거리가 담긴 봉투를 떨어뜨리는 썩치기 1.
돌아서려는 순간, 어둠 저편에서 두 명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기를 쓰고 달리는 썩치기 1.
그 뒤를 쫓는 두 명의 그림자!

42. 도로 차 안 - 실외/저녁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석환과 태수.
운전석의 석환 얼굴에서 소리 선행.

동환 (소리)

몇 달전부텀 지 일 도와주몬 카지노 생기는디 매점자릴 하나 내

준다고 하더라고...

43. 학원 옥상/플레쉬 백 - 실외/낮

38썸 연결. 고개를 숙인 채 석환과 태수에게 설명하는 동환.

동환

그럼 우리 엄니 더 이상 시장바닥서 고생 안 해두 되잖어...

석환

(동환에게 달려들며)

그걸 말이라구 허구 자빠졌나?!!!

태수

(석환을 뜯어 말린 뒤)

니가 필호 일을 도울게 뭐있어?

동환

카지노 들어선다 뭐헌다 해서 시끄러우니께 경찰덜이 필호네 애
덜을 꼼짝 못하게 잡었다... 허던 일은 계속해야 허니께 필호가
얼굴 안 팔린 애덜을 데려다 쓴다구...

석환

약은 원제부팀 해덴겨? 이? 약쟁이란 거 알구 그랜겨?

동환

(울먹이며)

아너, 아너!!! 석환이 넌 이 형을 그르케 모르나?... 필호 늑이 오
가메 고맙다구 접대하는 자리서 나두 모르게 이 지경을 멍글어
논겨... 이 지경이 됐는디 누굴 붙잡구 뭘 애길허겄나?...

(흐느끼며)

씨발 늑...

44. 도로 차안 - 실외/저녁

어디론가 향해가는 차 안에 앉아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태수 클로즈업. 이위로,

동환 (소리)

청년회장 형님이 필호허구 왕재허구 진행허든 일을 잘 알어.

45. 학원 옥상/플래쉬 백 - 실외/낮

돌아가려는 태수를 붙잡고 얘기하는 동환. 석환은 멀찌감치 떨어져 담배를 피우고 있다.

동환

나 이제 워트커냐... 이?... 한번만 눈 감어주면 안 되겠냐?... 널
모래 우리 엄니 환갑잔치여...

담배를 피우며 적개심 어린 눈으로 동환을 바라보는 석환.

태수

(한 숨을 푹 쉬며)
혹시라도 약 더 갖구 있는 거 있으면 누가 찾지 못하게 버리고,
이 시간부루 딱 끊어라 이? 사람이 망가지잖어.

46. 도로 차안 - 실외/저녁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태수와 석환.

태수

아마... 니 형 말이 사실일 거...
(묵묵히 운전하는 석환의 얼굴 위로)
원래 조직 애덜이 정보원 입막을라구 약쟁이 만드는 건 혼헌 수
법이니께...

47. 철거지역 청년회장의 집 앞 - 실외/밤

울상 진 얼굴로 황급히 용달 트럭 위에 짐을 싣고 있는 청년회장과 그 가족들. 나이든 노부모의
모습과 어린 자식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이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태수와 석환.
어느새 청년회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태수와 석환.

태수

아니, 세상 천지에 오밤중에 이사 간테년 사람덜이 워딴슈?

청년회장

(짐 실으며 성질내는)

날 선선하고! 차두 안 맥하고! 내 댄대루 이사도 못하?

석환

입김이 폭폭 나는데 이게 선선한 날씨유? 추워 디지겠는디?

태수

왕제허구 필호 사이에 뭘 일 있었쥬?

청년회장

아, 몰러! 비켜!!!

태수

(경찰 뺨지를 보이며)

일 더 커지기 전에 저헌티 얘기하시는 게 편할규.

48. 비닐하우스 앞 - 실외/밤

이사한 집기들을 비닐하우스 안으로 나르고 있는 청년회장의 가족들.
평상에 앉아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청년회장. 그 앞에 태수와 석환이 마주앉아 있다.

청년회장

(담배를 길게 빨며)

왕제가 필호헌티 조직 넘기구 동네가 개판이 됐어... 왕제는 시작
이야 건달생활루 시작했지마는 그러두 사업수완이 있었잖어. 근디
필호는 승질만 있었지 뭘 할 줄 아는 게 있었시아지...

49. 립쌀롱 - 실외/낮

만신창이가 된 종업원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가운데 사장을 마구 패대는 필호. 이 위로,

청년회장 (소리)

그나마 동네 잠잠했었는데, 필호가 수완이 읊으니까 다시 쪽발을
만들기 시작헌겨...

50. 비닐하우스 앞 - 실외/밤

청년회장 석환을 돌아보며,

청년회장

석환이 너두 필호 밑에서 수금허려 다녔으니까 알거 아니냐?

석환을 돌아보는 태수. 시선을 피하는 석환.

51. 택시회사 - 실외/낮

나약해 보이는 택시기사 하나를 무자비하게 패대는 석환. 주위 사람들 모두 말릴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피를 질질 흘리는 택시기사의 손가방에서 돈을 빼가는 석환.

청년회장 (소리)

암만 그려두 동네가 이미 다 죽어버려서 뜯어 낼래야 뜯어낼 건
덕지가 읊어졌지...

52. 철거중인 건물 앞 - 실외/낮

건물 앞에서 있는 필호의 모습. 그 앞에 철거되는 상인들이 목 놓아 울고 있다.
한숨을 내쉬는 필호.

청년회장 (소리)

그래다 일이 터진 거...

53. 청년회장의 부동산 사무실 - 실내/낮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화면. 카메라가 온성을 비치는 가운데 자막이 흐르고 있다. “온성시 관
광특구 후보지정”

이들 지켜보고 있는 청년회장.

청년회장 (소리)

기회가 온 거지. 작년에 여기가 관광특구 후보로 지정됐단 게 터
지자마자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허드라고.

바쁘게 전화 받는 청년회장. 사무실 전화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받더니 크게 기뻐한다.

여직원이 소파에 커피 두 잔을 내려놓고, 청년회장이 권한다.

청년회장 앞에 앉아있는 필호와 그 뒤에 서있는 여비서.

청년회장 (소리)

필호두 눈치는 있으니께 질루 먼저 날 찾아와서 정보를 쟈지.

54. 본정 통 거리 - 실외/낮

본정 통을 누비고 다니는 조 사장과 다섯 명의 일행들.

청년회장 (소리)

근디... 서울서 조 사장이란 늬털이 내려오믄서 일이 커지기 시작
했어...

55. 운당정 방 - 실내/밤

한복 입은 여자들을 끼고 술을 마시는 필호와 조 사장 패거리들.

청년회장 (소리)

카지노 사업을 진행허는 늬털인디 여기서 복잡허게 돌아가는 일
털을 필호가 해결해주는 조건으루다가 동업을 제안했나보더라
구...

56. 시장 - 실외/낮

상가 사람들을 만나며 반갑게 악수하는 필호. 상인들 모두 필호를 반갑게 맞이한다.

청년회장 (소리)

필호가 그때부텀 서울늬털헌디 자금을 지원받어서 여기 사람털헌
티 사체를 시작헌 거. 땅을 담보루...

57. 왕제의 술집 - 실내/낮

왕제를 찾아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모두 나이들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다.

청년회장 (소리)

근디 일케 뻘허 뵈는 속임수가 문제가 안 생기겄냐?... 결국 왕제
헌디 사람털이 자꾸 찾아가니께 왕제가 나섰지...

58. 운당정 방 - 실내/밤

왕재와 필호, 청년회장이 한복 입은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청년회장 (소리)

나두 그게 마지막이었어...

필호가 답답하다는 듯 청년회장을 재촉한다.

필호

아니 형님이 줌 말을 해봐유... 이게 우리만 위허자는 일인가...

청년회장

왕재 자네가 뭐 큰 오해를 허구 있는 모양이다... 나두 장사장 돈 갖다 썼어...

왕재

그래니께 형님두 문제라능규. 뻘히 문제가 있는 일얼 떡고물 줌 떨어질 것 같다구 눈 감구 있능규 시방?

필호

문제는 뭘 문제?... 같이 잘 살자구 이래는 거 아녀 지금?!!

왕재

고만해여. 너 한 늬이 다 흐리구 다녀서 동네 다 썩발 났어... 암만 건달 밥 먹어둠 마, 빨아먹을 게 있구 안 빨아 먹을 게 있지, 니가 거머리여? 이늬م 저늬م 안 가리구 피 빨아먹구 땡기게?

필호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헌거 아니냐? 나 니 손위처남이여...

왕재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얌마... 나 왕재여... 오왕재.

청년회장

(살벌해지는 분위기를 수습하려)
이거 왜들 이려... 비싼 술집 와서...

왕재
(필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가씨들에게)
야, 두꺼운 테프 있으믄 줌 가져와라.

지지 않고 왕재를 노려보는 필호.

59. 운당정 마당 - 실외/밤

테이프로 필호와 자신의 마주잡은 왼손을 칭칭 감아 묶는 왕재.
청년회장 긴장하며 보고 있고, 운당정 안의 사람들은 모두 몸을 숨기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필호
옛날 생각두 나구 재밌다 이?

왕재
(테이프를 버리며)
금방 지나믄 재미 읊어질 거.

필호
너 지금 실수 해능 거.

왕재
실수는 니가 헨겨... 지금이래두 관두겠다구 해믄 험한 꼴 안 뵈
구...

필호
좃이나 까 잡 슈...

순간, 필호가 왕재에게 선방을 날린다.
선방을 맞고 고개가 돌아가는 왕재.
필호가 두 번째 주먹을 날리는데, 왕재가 필호의 주먹을 막고는 반격을 가한다.
왼손이 묶인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만 싸우는 두 사람.
운당정 안의 사람들 모두 비명을 지르며 놀란다.
싸움이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필호를 뭉개기 시작하는 왕재.
필호, 피 댕이 되어 결국 무릎을 꿇는다.
이런~필호를 바라보는 사람들.

왕재
니가 지금 뭘 짓을 허는지 아직두 모르겠다 이 꼴통 새끼야... 너
그래다 이 동네 사람덜만 아니라 니 밥줄까지 서울 늪덜헌티 넘

어가!...

당황스럽게 바라보는 청년회장.
씩씩거리며 분을 이기지 못하는 필호.

태수 (소리)

그러구 필호가 왕재 제긴규?

60. 비닐하우스 앞 - 실외/밤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회장과 태수, 석환.

청년회장

난 거기까지가 마지막이래니께... 필호가 그러구두 남을 넘어긴 허
지만... 처 죽일 놈에 새끼...

태수

형님두 필호 욱헐거 읍슈. 동네 사람덜 필호 돈 뺏겨 쓰게 꼬드긴
게 형님 아뉴.

청년회장

나두 피해자여!

태수

누가 남에 돈 갖다가 노름허구 다니래유?

청년회장

(고개를 파묻으며)

필호가... 나 험티까지 이럴 줄은 몰렸지... 우린 동업자였던 말
여...

태수

(자리에서 일어서며)

거머리 새끼덜이 피 나눠 빼는 거 봤슈?... 암만 때때구 광내두 강
팬 강패유...

61. 비닐하우스 근처 차 안 - 실외/밤

태수와 석환이 차 안에 앉아있다.

태수

너... 워디꺼정 알구 있었냐?

석환

전부 침 듣는 얘기덜이유...

태수

필호 심부름 다녔데미?

석환

먹구 살래른 워쩔 수 읍잖어유! 당장 우리 형 약쟁이 되는 것두
몰렸는디...

이때 석환의 전화기가 울린다.

62. 여관방 - 실내/밤

불안한 표정으로 석환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미스 배. 뒤에 포커스 아웃된 상태로 찍치기 1이 창
밖을 살피고 있는 것이 보인다.

미스 배

여보세요?

미스 배 옆으로 다가오는 찍치기 1. 이제야 누군지 알 수 있다.

63. 왕재의 술집 - 실내/밤

왕재와 시비 붙는 10대 패거리들.

도망치는 아이들과 이들을 뒤쫓는 왕재의 모습이 다시 재현된다.

64. 거리, 골목 - 실내/밤

도망치는 아이들과 이들을 뒤쫓는 왕재의 모습.

아이들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다.

뒤쫓아 오던 왕재가 골목으로 들어선다.

왕재를 쫓아 달려가는 카메라.

왕재,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퍽! 하고 날아든 발에 나가떨어진다.
 왕재의 앞을 막아서는 필호의 비서 4인방. 쫓기던 10대 녀석들은 4인방 뒤로 숨더니 여비서가 가
 도 좋다는 신호를 주자 저편으로 달려간다.
 골목 밖으로 사라지는 10대 아이들. 그 앞으로 필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모습을 드러낸다.
 담배에 불을 붙인 성냥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퍽! 퍽! 소리와 함께 골목 안에서 4인방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왕재.
 4인방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다.
 무너져가는 왕재.
 이런 왕재를 일으켜 세우는 4인방.
 필호가 왕재 앞에 다가선다.

필호

내가 너 실수한다구 그랬지?...

왕재

장필호... 너 이 새끼...

왕재의 몸에 칼을 쑤셔 넣는 필호.

필호

(왕재의 귀에 대고)

야이 씨발 늑아... 내 동생 행복하게 해준다구 했으믄 책임을 지야
 지... 이게 뭘 풀이여...

고통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왕재.
 필호가 왕재의 배에 계속 칼을 쑤신다. 물러서는 필호.
 필호를 바라보는 왕재.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다가 바닥으로 쓰러진다.
 왕재의 시체를 남겨두고 사라지는 필호 패거리들이 부감으로 보인다.

65. 폐장된 놀이터 - 실외/밤

할 말을 잃은 태수. 걸터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석환 역시 멍하니 하늘만 보며
 서있다. 맞은편에 서서 눈치만 보는 퍽치기 1과 미스 배.
 갑자기 석환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 짐기들을 발로 걷어차고 난동을 부린다.
 바짝 쪼는 퍽치기 1과 미스 배. 석환의 눈치를 살핀다.
 ~ 난동 부리던 석환. 갑자기 고개를 돌리다 퍽치기 1과 눈이 마주친다.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잡고 퍽치기 1을 죽일 기세로 달려오는 석환.
 태수가 일어나 이런 석환을 말린다.

석환

너유!!! 저 새끼덜 댐이 왕재 형이 죽었던 말유!!!

완전히 얼어버리는 썩치기 1과 미스 배.

태수

(석환을 말리며)

정신 차려 새끼야!!! 필호를 잡으야 할 거 아녀!!!

태수의 말에 정신을 차리는 석환.

태수

(썩치기 1 쪽을 바라보며)

니네 신변보호만 확실하게 해주믄 경찰에서 그대루 증언할 수 있지?

66. 왕재의 집 마당 - 실외/밤

쿵쿵!! 요란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나오는 미란.
밖을 보니 태수가 와있다.

미란

(문을 열며)

지금 몇 신 줄 알아?

무작정 안으로 들어서는 태수. 취해있다.

67. 왕재의 집 거실 - 실내/밤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 태수. 미란이 따라 들어온다.

미란

이 시간에 술주정하러 왔어?! 나가.

태수

(소파에 걸터앉으며) ~

으아!!!

미란

도대체 왜 이래?!!

태수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눈물을 쏟아내며)

씨발... 제수씨... 야... 미란아... 장미란이!... 니 남편... 왕재... 니
오빠가 죽었어...

굳어버리는 미란.

태수

내 친구 왕재털!... 내 친구 필호가 죽었다고!... 씨이발!...

고통스럽게 잠들어버리는 태수.

너무 큰 충격에 선 채로 굳어버린 듯 미동도 없는 미란.

68. 석환의 집 - 실내/밤

역시 취한 채로 현관문을 여는 석환. 조심스럽게 들어서는데, 동환이 방문을 열고 나온다.

동환

늦었다...

동환을 바라보는 석환.

69. 아파트 옥상 - 실외/밤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는 석환과 동환.

동환

증말... 이 형이... 너 볼 면목이 없다...

석환

피곤하니깐 하나하나한 애긴 넘어가고 헐 얘기가 뭐여?

동환

넌 엄니 환갑잔치 말여... 넌 하루만이라도 니가 이 형헌티 형 대
접 줌 해줄 수 없었나?... 나 좋자구 허는 게 아니라 엄니가 불쌍
허잖어... 장남이라구 하나 있는 기 밖에서두 빌빌거리구 안에서두
빌빌 거리구...

석환

(담배를 탁탁 끄고 돌아서며)

에이... 씨발...

괜한 애길 했다는 듯 고개 숙인 채 한숨을 푹 쉬는 동환.

70. 운당정 개인 당 - 실내/밤

나무통으로 된 개인 욕조에 온천물을 받아놓고 입욕중인 필호. 그 뒤에 선 여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여비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필호

그러서 워치했으면 좋겠다능거나?

여비서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인지라 서울까지 얘기가 새기 전에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필호의 얼굴 위로)

우선은 우리 쪽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입들은 미리 막으시는 게 서울 쪽에서도 부담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필호의 얼굴.

71. 경찰서 안 - 실내/새벽

몇 명의 당직근무자들만 남아있는 강력반 안.

유치장 안에 갇힌 찌꺼기 1이 불안한 표정으로 쭈그리고 있다. 이 위로, 철컹!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강력반 입구를 지키던 형사는 문을 열어주고 꾸벅꾸벅 조는 가운데 생수통을 짚어진 배달 직원이 들어온다.

긴장해서 입구 쪽을 살펴보는 찌꺼기 1.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생수통 직원이 유치장 앞을 지나면, 유치장 안의 찌꺼기 1, 표정이 굳어진다.

생수기 옆에서 생수통을 내리는 생수직원. 모자 아래로 살짝 얼굴이 드러나는데, 바로 필호의 4인방 비서진 중 하나인 서 팀장이다.

떡치기 1

아저씨!!! 아저씨!!! 나 좀 살려줘유! 사람 살려유!!!

당직형사 1

(자다 일어나서 불펜을 집어던지며)

조용히 해 입마!

떡치기 1과 눈이 마주치는 서 팀장. 생수통을 열더니 유치장 안으로 짹- 뿌려댄다.

당황하는 떡치기 1.

황당한 행동에 어이없이 바라보는 당직 형사들.

당직 형사 1

(앞으로 나서며) 당신 미쳤...

서 팀장의 팔을 잡는데, 순식간에 당직 형사1의 목을 꺾어 쓰러뜨려버리는 서 팀장.

순간, 놀라는 형사들.

서 팀장, 책상을 밟고 비호처럼 날아서, 남아 있는 몇 명의 형사의 목에 불펜을 꽂아 제압한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는 경련을 일으키는 형사들.

떡치기 1

(바닥에 뿌려진 액체의 냄새 맡으며)

뭐여?!! 이거 휘발유 아녀?!!!

지포라이터를 탁! 켜는 서 팀장.

그제야 사태 파악하고 경악하는 뜰마니들.

유치장 안으로 라이터를 던지는 서 팀장. 바닥에서 화면 위로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몸부림치는

떡치기 1. 밖으로 사라지는 서 팀장.

72. 태수의 숙소 - 실내/아침

짐을 정리하는 태수. 전화벨이 울린다.

태수

(전화를 받으며)

예, 정태습니다... ~

(전해지는 내용을 들은 뒤 표정 굳어진다)

73. 석환의 집 - 실내/아침

석환의 엄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있다. 그 뒤에 서있는 석환과 동환.

석환

아따... 우리 엄니... 옛날 가다 나오시네...

석환 엄마

내가 꾸미질 않는 성격이라 그래지 꾸미기만 허든 지금두 웬만한
텔런트 가단 나오지...

석환

뭐 엄니 가다가 좋아서 그류?... 형이 워낙 한복 이쁜 걸루 맞춰
왔구만...

석환을 바라보는 동환.

석환

(동환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이모 모시구 다시 잔치허는디루 갈래든 시간 늦겼슈. 나가유.

엄마를 모시고 나가는 석환. 동환, 석환에게 고마운 표정이다.

74. 저수지 낚시터 좌대 - 실외/아침

화면을 가득채운 라이터 불길. 담배에 붙는다.

연기를 길게 내뿜는 필호.

카메라 뒤로 빠지면, 물안개가 올라오는 호수 풍경이 펼쳐지고, 커다란 양동이에 발을 담근 청년
회장이 박 팀장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보인다.

청년회장의 발이 담긴 양동이에는 굳은 콘크리트를 툭툭 손으로 확인하는 필호.

필호

모래허구 비울 잘 맞춘 거여?... 이런 거 잘 못해서 성수대교 무
너지구, 삼풍 자빠지구 그래는 거여...

(올려보며)

다 굳었는데 뭐허구 있냐?

입술에 재갈이 감긴 채 발악하는 청년회장.

필호

(청년회장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차암- 지가 형님을 질루 위해유... 근디 왜 사람 뺨을 일케 몰러주
구 흐름을 잘못타는 거 옛날부터... 속상해 죽겠네 증말... 그러게
지가 알아서 잘 챙겨드릴 때꺼정 줌 저기 허라구 그랬잖어유... 형
님 땡 내가 뺏어서 나 혼자 먹을라구 그랜규? 어련히 나중에 땡
다시 찾게 내가 조치를 취허지 않을 스타일이유? 아니 자긴 아무
희생두 읍이 워처케 승리될 쟁취할 수 있슈...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마는 난 잘 못 읍슈. 형님이 자초헌 일이유... 왕재 만나므
는 안부나 전해 줘유.

기를 쓰고 발악하는 청년회장을 톡, 밀어버리는 필호.

75. 물 속 (아침)

풍덩! 소리와 함께, 수심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청년회장을 따라 킬 다운하는 카메라.
바닥에 거의 가라앉을 때 즈음 청년회장과 같은 모양으로, 이미 오래전에 처리된 듯 다리가 콘크
리트로 발라진 채 가라앉아 있는 몇 구의 시신들이 보인다!

76. 태수의 숙소 - 실내/낮

계단을 올라오는 김 팀장과 두 명의 부하들.
쾅! 태수의 빈방을 부수고 들어오는 김 팀장과 부하들. 아무도 없는 방 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77. 국도 변 숲길 - 실외/낮

필호의 차가 숲길로 들어선다. 낙엽들을 헤치며 다가오는 필호의 차.
차 안의 필호가 맞은편에서 누군가를 발견한다.
차 안의 시선으로 석환의 차를 타고 온 태수가 길을 막아 세운 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멈추는 필호의 차.
태수가 차에 기대고 서있던 몸을 일으킨다.
차에서 내리는 필호와 박 팀장. 박 팀장을 손으로 막으며 앞으로 걸어 나오는 필호.

78. 한적한 도로 - 실외/낮

석환의 가족이 탄 차가 신호대기에 걸린다.
이 뒤에 따라붙는 여비서의 차.

79. 국도 변 숲길 - 실외/낮

다가오는 필호를 보며 차안에 있던 뱀술을 꺼내드는 태수.
몇 걸음 앞에서 멈추는 필호.
태수, 병을 따더니 벌컥벌컥 마시고는 입으로 잘라낸 뱀을 와득 와득 씹어 먹으며 필호에게 병을 던진다.
척! 목 잘린 뱀이 든 술병을 손으로 받는 필호.

태수

기억나지?... 아적 20년 지날래몬 한 참 남있는디 벌써 한 늬 가
고, 우리두 둘 중 하나는 20년 못 넘길 거 같어... 지금 밖엔 마실
시간이 없을 것 같어서 갖구 왔다.

80. 한적한 도로 - 실외/낮

신호가 풀리고 석환의 차가 직진하려는 순간, 옆에서 대형 트럭이 달려와 석환의 차를 그대로 들
이 받는다. 처참하게 찌그러지는 석환의 차.
사고를 확인 한 뒤 유유히 사라지는 여비서의 차.
피투성이가 된 채 지나가는 여비서의 모습을 확인하는 석환.

81. 국도 변 숲길 - 실외/낮

마주선 태수와 필호.

필호

아적 안 올라갔었나?

태수

너랑 같이 올라갈라구.

필호

(술을 보고 피식 웃으며 마신 뒤)
난 여기서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여...

82. 한적한 도로 - 실외/낮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엄마와 형을 붙잡고 오열하는 석환.

태수 (소리)

사람덜이 올메나 더 망가지야 허냐? 여기 니 고향이엌 마.

83. 국도변 숲길 - 실외/낮

고개를 든 채 내리까는 시선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필호

본적 바꾼 지 한참 됐다.

태수

까불지 말구 그만 해여.

필호

그거 아냐? 어려서부터 니덜은 나헌티만 명령쫓루 말헌 거?

태수

명령쫓가 아니라 명령이여. 안 그람 내가 직접 움직인다 이.

태수, 필호를 쏘아보는 시선을 거두고 빌려온 석환의 차 쪽으로 돌아선다.

완전히 밀려버린 필호. 태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들고 있던 술을 벌컥벌컥 다 마셔버린다. 남은 뱀을 한입 베어 물고 잘근잘근 잔인하게 씹더니,

필호

태수야!

태수, 차에 오르려다 말고 돌아보면, 획- 태수에게 빈병을 던지는 필호.

척- 받아드는 태수.

필호

시간 있으믄 나랑 싸우나나 같이 허자.

84. 텅 빈 목욕탕 안 - 실내/밤

푸아! 물을 튀기며 살짝 물이 고인 바닥 위로 쓰러지는 태수.

머리를 흔들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면, 태수를 향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김, 박, 서 팀장.

태수, 3인방에게 공격을 가하려는데, 팀장들의 거친 공격에 여지없이 나가떨어지는 태수.

쓰러져 있는 태수의 얼굴을 걷어차는 구둣발!! 퍽퍽!!
태수가 피를 뿌리며 쓰러질 때마다 옆에 쓰윽 나타나서 바닥의 피를 닦아내는 살수.
태수, 3인방에게 가혹한 런치를 당한다.
그 모습을 의자에 앉아 지켜보는 필호와 그 곁의 여비서.
완전히 맥을 잃은 태수.

필호

워쨌 버티기가 예지 간 해여?

눈두덩이 부어올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피를 잔뜩 흘리고 있는 태수. 기를 쓰고 필호를 올려본다.

필호

너 그거 아냐? 쨌 녀한테 숙이구 들어가는 늑덜두 치사헌 늑이치
만, 쨌 늑 몰라보는 늑덜은 더 질 나쁜 늑이여!

(태수의 피를 닦아주며)

워쨌? 열 받아 미치겠냐? 옛날 핫바지 꼬봉노릇허든 늑헌티 꼼짜
못허겠으니께 죽겠냐? 죽는 것 두 죽을힘이 있으야 죽지? 안 그
래여?

(거친 숨만 몰아대며 어찌지 못하는 태수를 보며)

난 너 안 죽여. 왜? 니가 내 상대가 안 되니께. 원래 용서두 힘
있는 늑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 그게 진짜 용서여. 쨌 늑이 약
헌늑헌티 베푸는 거...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태수에게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곤)

태수야... 살어보니께 강헌 늑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늑이 강헌 거드라...

85. 시외버스 터미널 앞 - 실외/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적 없는 터미널 앞으로 거칠게 달려와서는 끼이익! 타이어 갈리는 소리
를 내며 멈춰서는 승합차. 차문이 열리고 툅! 바닥에 버려지는 태수.
뒤따라오던 필호의 차 멈춰 선다. 창문이 열리며 모습을 드러내는 필호.

필호

(쓰러진 태수를 향해 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던져주며)

차비나 해여.

부웅- 떠나는 승합차와 필호의 세단.
쓰러져 있는 태수에게 물이 된다.

필호의 차 안.

여비서

저렇게 살려두시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선에서 처리할까요?

필호

(눈을 감은 채 나지막히)

니털이 뭐디?... 내가 판단허구 내가 결정해여.

(눈을 뜨며 살벌하게)

내가 왕이라고!

다시 터미널 앞.

몸에 만 원짜리 지폐가 붙어있는 가운데, 간신히 팔을 움직여 땅에 짚고 몸을 일으키려던 태수, 털썩 힘이 빠지며 쓰러진다. 비장미 넘치는 음악 시작.

86. 병원 앞 - 실외/밤

담배를 입에 문 채 멍하니 앉아있는 석환. 상처부위에 붕대가 감겨져 있다. 음악 연결.

87. 몽타주

음악 연결.

1) 왕재의 술집 - 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술집 안으로 들어오는 태수.

진열되어 있던 양주들을 꺼내 상처부위에 뿌린다. 디졸브.

2) 장례식장 안 - 낮

어머니와 동환의 영정 사진을 뉘 나간 얼굴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석환. 디졸브.

3) 호텔 세미나 룸 안 - 낮

<온성 관광특구 카지노 개발사업 업체 조인식>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가운데, 대기업 건설사 사장과 공사 계약을 하고 있는 조 사장.

서로의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서로 교환한다.

필호, 벌떡 일어서서 미친 듯이 박수를 친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디졸브.

4) 왕재의 술집 - 낮

페인트 통에 피워져 있는 불.

태수, 바늘을 불에 달궜다가 팔뚝의 찢어진 상처를 직접 꿰맨다. 고통을 이겨내는 태수. 디졸브.

5) 카지노 공사 현장 - 낮

테이프를 가위로 자르는 필호와 조 사장 등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삼으로 흙을 뜨는 시늉을 하는 관료들. 사방에서 사진을 찍어대는 기자들. 디졸브.

6) 왕재의 술집 - 낮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태수.

몸을 움직여 본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태수의 뒷모습. 몸을 푼다.

7) 장례식장 - 낮

장례식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석환 어머니와 동환의 관. 멍하니 바라보는 석환의 옆에 미란이 서있다.

장례 리무진에 관이 실린 뒤, 차에 타려는 석환과 미란이 누군가를 발견한다.

상처를 치료하고 찾아온 태수가 서있다. 음악 마무리.

88. 법당 - 실외/낮

어머니와 형의 영정을 시뻘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석환.

뒤에 미란과 태수가 서있다.

내려오는 길.

앞에 가는 석환을 뒤따라가며 태수에게 말을 거는 미란.

미란

나 내일 떠나요... 서울로.

태수

(무심하게)

그러나?...

미란

(제자리에 멈춰서며)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오빠데...

함께 멈췄던 태수. 미란을 남겨두고 다시 걸어 내려간다.

미란

(태수의 뒤에 대고)

오늘 밤에 운당정에서 카지노 사업팀들 모여서 파티 연대요...

대꾸하지 않고 걸어가는 태수.
눈물을 흘리는 미란.
태수, 석환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난다.

89. 필호 사무실 건물 앞 - 실외/낮

사무실 건물에서 4인방 비서들과 나오는 필호. 전화벨이 울린다.

필호

(전화 받으며) 여부세유?

90. 공사 중인 건물 - 실외/낮

공사 중인 건물에서 전화 통화하는 석환. 옆에 태수가 서있다.

석환

나유 석환이...

91. 필호 사무실 건물 앞과 공사 중인 건물 교차 - 실외/낮

사무실 건물을 나오며 전화 받다 멈칫하는 필호.

필호

이!... 워치케 엄니허고 동환이 장례는 잘 치렀나?... 내가 경황이 없어서 가보질 못했는데... 부주는 했는디...

석환

마음만 받을 게유... 이제부텀 전쟁이유...

필호

야, 뭐 화나는 일 있었는게비다... 왜 그래여 무섭게... 근디 워찌냐 오늘 우리 서울 직원들 전부 내려와서 줌 바쁘겠는디...

석환

괜찮어유... 우린 때와 장소를 안 가리니께...

전화를 끊으며 사악한 표정을 짓는 필호. 차를 향해 간다.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는 석환과 태수. 석환이 전화를 끊는다. 카메라 석환의 뒤를 돌아 부감으로 떠오르며 건물 아래를 비추면, 그곳이 필호 사무실 건물 맞은편임이 드러난다. 차에 오르는 필호를 보고 있는 석환과 태수. 음악 시작.

92. 운당정 마당 - 실외/밤

4인방 비서들과 함께 마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필호. 고속촬영. 음악 연결.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던 직원들이 필호에게 인사를 한다. 인사를 받으며 들어서는 필호.

93. 도로 - 실외/밤

도로를 달리는 석환의 차. 태수를 태우고 운당정을 향해 가고 있다. 음악 연결.

94. 운당정 특별실 - 실외, 내/밤

운당 여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특별실로 들어서는 필호. 고속촬영. 음악 연결.
문이 열리면, 특별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 사장과 직원들 10여명이 일어나 필호를 맞이한다.
즐겁게 인사하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필호. 방문 양쪽에 대기하고 있던 여직원들이 문을 닫는다.

95. 운당정 주차장 - 실외/밤

운당 내부가 보이는 부감 쇼트. 시끌벅적한 운당의 파티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붉다운 하는 카메라.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석환의 차로 다가가는 카메라. 차 안에 있는 석환과 태수가 보인다. 음악 연결.

석환

(준비해 온 목검을 꺼내며)

동환이 형이 판검사 됐으면 우리 뒤 봐 줄 수 있었을텐디...

태수

(목검을 받으며)

난 영장이 읊어서 그렇지 반 합법이어...

서로를 보며 피식 웃는 두 사람. 차에서 내린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고속 이미지. 음악 커진다.

96. 운당정 입구 - 실외/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태수와 석환의 고속 이미지. 음악 연결.
운당 안의 사람들. 두 사람을 돌아본다.

97. 운당정 특별실 - 실내/밤

머리위로 잔을 치켜드는 필호와 중역들. 고속 이미지. 음악 연결.
홍청망청 노는 모습 고속 촬영.

98. 운당정 입구 - 실내/밤

주위를 둘러보며 서있는 태수와 석환. 음악 연결.
이들을 보며 마주서는 조직원들.

태수

장필호 워됐다?

99. 운당정 특별실 앞 - 실외/밤

대기하고 있던 4인방. 밖에서 “와아!” 하는 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본다. 음악 연결.

100. 운당정 - 실외/밤

주위를 에워싸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대결을 펼치는 태수와 석환. 음악 연결.
달려드는 족족 목검으로 쳐내버리는 태수와 석환.
주위의 지형지물을 이용하며 폭주하듯 싸움을 펼친다.

중간 중간 이들이 벌였던 10대 시절의 패싸움 장면이 불규칙적으로 삽입된다.

마당을 휘저으며 직원들을 쓰러뜨리는 태수. 운당 마당에 진열된 무기들을 꺼내 상대들을 쓰러뜨린다.

(무기들은 모두 싸움 중간에 부러지거나 던지고 해서 계속 교체하다가 결국 모두 버리게 된다)

갈라지는 두 사람.

석환이 땅에서 싸우며 뚫고 나가는 동안, 태수는 지붕을 타고 올라 이동한다.

지붕위로 오르는 조직원들.

태수의 공격에 모두 지붕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지붕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태수.

석환도 조직원들을 뚫고 문을 통해 다음 마당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한다.

한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부수며 달려 나가는 석환을 트래킹 쇼트로 따라가는 카메라.

방문이 부서지며 방 안의 상황이 펼쳐진다.

긴 방 안을 뚫고 가는 석환. 위기에 몰리는 순간,

지붕이 뚫리며 태수가 떨어진다.

다시 전세 역전!

방문들을 뚫고 돌진하는 태수와 석환.

마지막 방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

두 사람의 싸움이 시간순서를 무시하고 교차된다. 음악 마무리.

101. 운당정 특별실 - 실내/밤

술을 마시던 필호와 조 사장. 술잔을 멈추며,

조 사장

밖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필호

신경 끄세유... 장사 잘되는 술집이 시끄러운기 정상이쥬 뵈...

102. 운당정 - 실외/밤

어느새 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필호의 조직원들.

태수와 석환이 바라보며 서로에게 다가온다.

문 앞에서 조우하는 두 사람.

특별실 마당으로 향하는 문을 연다.

103. 특별실 마당 - 실외/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태수와 석환.

태수

장필호! 나와!

작은 연못을 사이에 두고 안으로 들어서는 태수와 석환을 바라보며 진을 치는 4인방 비서들. 이 뒤로 조 사장과 직원들이 특별실에서 나온다.
연못을 건너지 못하고 이들을 지켜보는 태수와 석환.
조 사장 뒤로 필호가 따라 나온다.

조 사장

이게 뭐야... 저 두 놈을 못 막아서 이 소란들을 피워?...
(필호를 보며)
장 사장 다시 봐야겠네...

돌아서는 조 사장을 잡아 순식간에 품에 든 칼로 목을 따버리는 필호.

필호

아... 새끼... 거 말이 많어...
(필호를 보는 직원들을 보며)
뭐?... 뭐?...

직원 중에 중역으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직원들을 제지하며 물러서라고 한다. 물러서는 직원들. 미친놈처럼 씩 웃는 필호.
중역은 대치 상황을 살펴보더니 직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필호

압실현 새끼덜... 태수 년 아직 안 올라갔나? 차비까지 받아놓고?

태수

차비가 올랐더라고. 받을 거든 더 받으야할 거 같아서...

필호

일루 들와. 술이나 한잔~하게. 여기 안주가 괜찮어...

안으로 들어가는 필호.

태수와 석환, 필호를 보고 연못 위에 놓인 작은 다리를 건너는데, 4인방들이 앞으로 달려 나온다. 4인방과 대치하는 태수와 석환. 음악 다시 시작.

여비서와 서 팀장이 태수를 막고, 김 팀장과 박 팀장이 석환을 막는다.
이전 마당과 다른 지형지물을 이용하며 싸움을 벌이는 태수와 석환.
나뉘서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교차되기도 하고,
분할 화면으로 보이기도 한다.
각기 2대 1의 대결을 벌이는 두 사람.
비서들의 암기가 펼쳐지며 힘겨운 싸움이 펼쳐진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두 사람.
태수는 서 팀장을, 석환은 김 팀장을 쓰러뜨린 뒤 2대 2의 대결구도로 접어든다.
연합해서 공격을 펼치는 태수와 석환.
결국 마지막 남은 비서들까지 쓰러뜨리는 두 사람. 음악 마무리.

시간은 어느새 푸르스름한 새벽으로 바뀐 가운데, 태수와 석환이 주위를 둘러본다.
특별실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문을 여는 순간, 날아드는 단검에 어깨를 맞고 나뉘는 석환.
태수는 가까스로 단검을 피한다.
옆에 있던 장검을 들고 휘두르며 앞으로 나오는 필호!
태수, 필호가 휘두르는 장검을 피해 뒤로 물러나다 결국 검상을 입는다.
바닥을 나뉘는 태수를 향해 검을 날리는 필호!
석환이 달려들어 필호와 부딪치며 필호의 공격을 막는다.
다시 휘두르는 필호의 검을 급한 나머지 손으로 잡는 석환.
필호가 검을 돌리자 석환의 손가락이 날아간다.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석환.
다시 석환을 공격하는 필호에게 달려드는 태수!
태수와 싸우는 필호.
태수의 배에 필호의 칼이 꽂힌다.

인터 컷. 칼에 찔리는 왕재의 모습.

피를 토하는 태수를 보며 미소 짓는 필호.
태수를 찌른 칼을 돌리며,

필호

위짜? 뭐가 뜨거운 게 폭, 몸 속으루 쑤시구 들어오는 거 같지?
침에 칼 맞을 땐 다 그러...

태수를 뒤로 몰아붙이며 말을 이어가는 필호.
태수, 고통에 몸부림 치고, ..

(이들의 대화 중간 중간에 즐거웠던 과거 장면들이 삽입된다)

필호

왜 사람을 자꾸 나쁜 놈으루 만들구 그래나...

바닥을 기며 주위를 살피는 석환. 바닥에 떨어진 낫이 보인다.

필호

(계속 태수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왕재두 그래구, 너두 그래구, 왜 자꾸 사람 말을 무시해는 거여.

낫에 묶인 새끼줄을 손목에 감는 석환.

필호

왜?... 억울허냐?... 니털 꼬봉이라구 생각했던 놈이 니털 다 누르
구 니네 고향 왕 되니께...

태수

필호야... 워쳐커다 이르게 됐나...

(무슨 소린지 기다리는 필호에게 씩씩 미소를 보내며)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여...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

열 받는 필호. 배를 그으려고 칼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석환이 날아들며 새끼줄에 매달린 낫을 던진다.
필호의 목으로 날아드는 낫!
석환이 새끼줄을 채며 바닥을 뒹굴고,
태수의 얼굴에 피가 튄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태수를 바라보는 석환.

어느새 아침.

필호의 목이 바닥을 나뒹구는 가운데, 목 없는 필호의 시체가 푹, 무릎을 꿇는 것이 풀 쇼트로 보
인다. 잠시 후 태수 역시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몸통에서 떨어져 나온 필호의 얼굴.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다.

104. 온성 역 - 실내/아침

짐 가방을 들고 역 안으로 들어오는 미란.
매표소에서 표를 끊는다.

105. 도로 - 실외/아침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는 석환의 차.

병원을 향해 운전하고 있는 석환. 손을 수건으로 감은 채, 자꾸 뒤를 돌아본다.
뒷좌석에 누워 피를 흘리는 태수, 쿨럭 대며 입에서 피를 토한다.

석환

좀만 더 참어유... 금방 병원이유.

106. 온성 역 - 실내/아침

시계를 보며 홀로 앉아있는 미란. 일행들과 함께 분주히 역을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있는 미란의 모습이 더욱 눈에 띈다.

107. 도로 - 실외/아침

석환, 돌아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죽음에 임박한 듯 보이는 태수.

석환

형님, 그거 생각나쥬?... 우리 옛날에 왜 있잖어유... 팔팔 담배
600원 할때, 형덜이 동환이 형 시켜서 담배 사오라구 헛거...
(차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

교통스텝다가도 피식 웃음을 흘리는 태수. 지쳐있다.
어느새 차가 완전히 멈춰 선다.

석환

아 왜, 담배 심부름 보냈드니, 600원 갖구나가서 나가서 까치 담
배루 열두 가치 사왔잖어유... 토크 박스서 가치담배 50원씩 팔 때
말유...
(태수를 보며 다급해진 목소리로)
그래니께 좀만 참어봐유 좀!!!

앞쪽 차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꽉 막혀 있다. 크랙슨 소리들이 시끄럽게 울리는 가운데, 석환도 신경질 적으로 크랙슨을 울린다.

석환

아, 뭣들허구 자빠진 거?!!! 이 교통 개새끼덜!!!

석환, 계속해서 신경질적으로 크랙슨을 누르는데, 좀처럼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차를 돌려볼 요량으로 뒤를 돌아보는 석환.
그러나 뒤쪽과 양 옆, 사방이 차로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인도를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석환.
태수는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이다. 석환을 바라보며 씨익 미소 짓는 태수.

석환

웃지 마유... 정 드니께...

이때, 멀리서 들려오는 관현악대 소리.
석환,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보면.
도로 저편 역전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퍼레이드 행렬!
<경축! 온성 관광 특구 지정!!!> 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운 채 축제 행렬이 이어진다.

108. 온성 역 - 실내/아침

소란스런 소리에 밖을 내다보는 미란.

109. 역전 도로 - 실외/아침

축제분위기의 사람들.
각 건물 옥상에서 종이 꽃가루가 날리며, 관광특구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펼쳐진다.

역 앞으로 나와 밖을 보는 미란. 망원렌즈로 보이는 미란이 금방 인파에 묻혀버린다.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살피는 석환.
역시 위를 보며 허무한 미소를 짓는 태수.

태수

인자... 촌놈 소리 안들어두 되겠다 야...

천천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태수.

석환

아, 씨발!!! 다 왔다니께!!!

스르륵... 눈을 감으며 손을 툭- 떨어뜨리는 태수.
광분하는~석환을 밖에서 지켜보는 카메라. 축제행렬의 음악소리와 함께 천천히 뒤로 빠지며 붐
업 하는 카메라. 석환의 차를 중심으로 꽉 막혀 있는 도로의 모습이 펼쳐지고, 도로 저편으로 화
려한 축제분위기를 만드는 퍼레이드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페이드아웃.

2005. 8. 6.